

주 제 발 표 Ⅳ

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한 생활개선 사업

김 화 님
농 촌 진 흥 청

제1절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변천

1. 사업 개요

생활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7년 농사원이 발족된 때부터이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여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농가생활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에 의거 농가생활 및 지역농업발전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생활에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농촌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여성으로 육성하는 사회교육 사업이다. 농가의 생활과 농업경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농가생활을 보다 좋게 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생활과 생산의 균형유지로 농가생활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급한다. 아울러 농가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활지도사가 농가주부와 대면접촉을 통하여 같이 생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고 농촌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기르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생활지도공무원은 농업인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 생활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농사교도사업의 기초가 된 농사교도법은 1957년에 공포되었고 제1조(목적)에 보면 “본 법은 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필요한 연구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함으로서 농산물의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농업교도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생활개선사업이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로 볼 수 있다.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에 관한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근대화를 뒷받침하여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목표는 우선 농촌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과 다양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능력을 길러 시대변화에 대처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의식의 개선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농촌주민의 건강한 농촌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의 대상을 도시소비자까지 포함하여 안전한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1956년 10월에 제정된 농사교도법에 농사교도사업의 3대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1958년 4월 가정교도원 촉탁 91명을 채용하여 각 도 농사원에 배치하여 9개 도 농사원과 73개 시군 농사교도소에 배치하고, 1961년에는 91명, 64년에는 141명의 생활지도사를 증원하여 총 322명으로 시군당 2명씩 배치하였다. 1979년에는 농

촌영양개선연수원이 설립되어 농촌식생활과 영양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생활지도공무원 훈련사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농촌에서도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1989년 4월에는 농촌진흥사업 대전환계획에 의거, 도 농촌진흥원에 생활지도과, 군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를 신설하고 생활지도사 393명을 증원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 생활지도과, 군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를 신설하고 생활지도관 8명을 증원하는 등 생활지도공무원이 725명으로 확대되는 등 생활개선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방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5개 도원의 생활지도과와 3개 생활개선 담당이 줄어 강원, 충남, 경북 등 3과 14담당만 남게 되었고, 시군은 144계에서 28팀이 줄어 116팀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3년 1월 1일에는 충북도원 생활기술과(생활기술·가정경영·식품개발팀)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전통식품팀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2003년 9월 현재 생활지도직 인원은 지도관 18명, 지도사 565명 등 총 583명이다.

사업에 투입된 국비예산의 규모를 보면 1967년에 2,597천 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국비보조 65억 6백 만원, 융자 42억원 외에 도비·시군비 등을 포함하여 29,551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을 알 수 있다. 1997년 1월에는 도 및 시군 생활지도사 700명(도원 48명, 시군 652명)이 지방직화되었으며 2월에는 시군 농촌지도소 소장 및 과장의 직위에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화하여 단절된 생활지도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열어 주었다. 그 결과 경기 광주, 충남 홍성, 경북 김천, 경남 양산, 대구 달성 등 5개 시군에서 생활지도관이 과장 또는 담당관 보직을 갖고 있다. 2002년 3월 2일에는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기술지원국장'과 '지도기획과장' 직위에 '생활지도관'을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707호, 2003. 8. 14)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란에 '생활지도관' 포함하였다.

2. 발전과정

지도사업 초기에는 6·25동란 후의 경제적 불안정과 국민재건 운동의 개시, 식량부족과 잠재실업의 가중 등의 시대적 배경아래 간편한 바구니 앞치마 등 농작업복 입기를 권장하여 4-H 경진대회에서 의장경진도 실시하였다. 개량메주 만들기, 식량 소비절약 방안으로 칠분도미 먹기 및 분식 장려, 아궁이개량을 중점 지도하였으며 농번기에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 탁아소를 운영하였다. '63년에 농번기 탁아소 139개소, 보모 145명, 탁아인원 15,060명이던 것이 '69년에는 2,827개, 2,699명, 103,97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경향신문사는 '66년도에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농촌아기의 집(탁아소) 세우기 운동을 농촌진흥청 후원으로 전개하여 농

사철을 맞아 농촌부녀자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뜻깊은 사업으로 농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부업기술을 중점과제로 지도하였는데 이 모든 과제를 농촌여성학습조직체인 생활개선구락부 육성을 통한 집단지도에 주력하였다. 특히 60년대는 농촌여성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부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농가부업확대를 위하여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성에 맞는 부업제품의 생산·기술향상에 노력하였다. 1966년에는 농가부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71명의 생활지도사를 5개월간 훈련시켜 12개 부업단지에 배치시켜 지도를 맡도록 하였다. 1958년부터 1970년까지 지도한 주요 가정부업은 수공예, 수편물, 훌치기, 죽세공예, 자개박이, 조화, 인조진주, 중소가축, 양잠, 양봉, 옥수수피 가공, 왕골가공, 수수비, 건조채소 판매, 느타리버섯, 인조눈썹, 보세가공, 가방 등 다양하였다. 부업기술 지도 및 훈련사업 중 부업단지 조성과제는 1968년부터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이관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적 급성장시기였고 석유파동이 있었다. 1974년 정부 주도하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고 식량증산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일궈어지는 녹색 혁명의 성취 등의 시대적 배경을 안고, 남성노동력의 도시 유출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참여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번기 공동 취사장을 운영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농번기에만 2개월 운영하던 농번기 탁아소는 농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마을에 따라 찬서리가 내릴 때까지 6개월간 운영기근을 늘리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마을마다 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장소확보는 물론 놀이시설까지 해결되는 기쁨도 있었고 탁아소의 진면목을 갖추기 시작했다. 농번기탁아소에서 쓰일 놀이기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71년에는 대한일보사 주최, 농촌진흥청 후원으로 놀이기구를 수집하여 그림책, 색연필, 도화지, 완구 등과 현금도 모아 탁아소에 보내졌다.

1970년대의 생활개선지도는 농촌영양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4단계에 걸쳐 1968년부터 1981년까지 1,847개소의 영양개선시범마을을 육성하였다. 또한 과학적인 조리, 가공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 도농업기술원(당시 농촌진흥원)에 단체급식장을 지원하여 감자요리, 토끼요리 등을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량자급을 위해 개발된 신종종 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식생활 지도에 유니세프(UNICEF)와의 협력사업으로 응용영양개선시범마을, 아동영양시범마을 육성 등 균형식 섭취와 어린이 영양지도를 위한 식생활 개선에 주력하였다. 부업활동에도 주력하였는데 메탄 가스이용지도, 1962년에 시군 및 읍면 연합회를 조직한 생활개선구락부를 1975년부터는 자립, 자조, 기초마을로 분류하여 육성하는 등 집단지도에 중점을 두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 전국연합회장 연찬회를 개최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기술훈련, 지식 습득으로 지도자로서의 능력 향상을 하도록 하여 생활개선구락부 및 인근마을에 전달하는 등 파급효과를 올렸다. 그러나 마을단위에 난립된 농민조직을 정비하고 새마을 운동의 통일적 실천을 위하여 1977년. 7. 8 국

무총리령 141호에 의하여 생활개선구락부, 부녀교실, 새마을부녀회, 가족계획어머니회 등의 부녀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조직에 통합되어 생활개선사업, 교양사업, 가족계획사업, 저축 사업 등 농촌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조직체제가 마련되었으며 부녀회장과 새마을청소년회 여부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이 설립되었는데 영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가정 전문가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행함에 목적을 가지고 연구조사과에서는 영양연구, 조리법, 식품처리,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과에서는 생활지도공무원과 부녀지도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농업분야에서는 쌀 자급을 달성하였다. 농촌생활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농촌가정 경영자, 농업경영 참여자 및 의사결정자, 학습조직활동 참여, 지역사회 참여자 등 역할이 다양화되어 그에 대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을 덜고 농가 부역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하여 부역개량이나 주방기구 개선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1983년부터 7억 원의 농업개발자금 융자지원으로 7,210호의 농가가 89천 원의 융자금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2002년까지 지속되어 총 17만여 호가 부역을 입식으로 바꾸게 되고 가사노동도 20~40%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서구화되어 성인병이 증가하고 쌀의 재고량도 느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쌀을 중심으로 각종 채소를 부식으로 곁들이는 한국형식생활의 정착과 쌀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환경문제가 범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부터 실천하자는 측면에서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촌주부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개선과제를 한 마을에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시범효과를 올리고자 1983년부터 읍면당 1개소씩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을 지정, 3년간 육성하였는데 첫째에 마을 당 5호의 생활개선실천농가를 정하여 3년 후 마무리 될 때는 15농가가 생활개선과제를 앞서 실천하고 주변에도 과급하도록 하고 마을민 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조성하였다. 2000년까지 6차에 걸쳐 8,180개소를 육성하여 화목한 가정,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농가단위 과제를 실천하고 근검 절약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농촌문화 전승하기, 녹지공간 조성, 환경보전 실천 등 마을단위 실천과제를 이수토록 하였고 2001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생활개선지도사업의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고 지도내용도 농민건강, 생활환경, 생활경영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확대 전환되었다. 특히 농촌 여성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활개선사업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력 지위향상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실시한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이다. 1990년도부터 전국 5개소의 시범지역을 정하여 800만원씩을 지원하여 농촌여성 공동으로 현

지 실정과 여성의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사업장을 짓고 기자재를 설치하여 여성의 숨씨를 발휘하여 한과, 장류, 농산물 가공 등 농산가공품과 모시, 명주 등 비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토록 지원하였다. 2002년까지 총 149개소의 국비지원사업장을 육성하였으며 매년 사업장 대표와 관계공무원이 모여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 정보교환, 생산제품 소개 등 보다 성과있는 사업장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농촌여성들에게 저축통장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당히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1마을 1사업 1여성사장'을 육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면서 농작업 환경개선 과제를 보급하였는데 지방사업으로 농작업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공간과의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과 바깥의 온도차이에서 오는 부담을 덜기 위한 비닐하우스중간휴게실,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자나무 주변 공터 등을 정비하여 간단한 운동기구나 의자 등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활용토록 하였다. 농사일로 인한 피로를 빠른 시기에 회복하여 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깨 결림, 요통, 야뇨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농부증 예방을 하기 위해 건강기구실, 찜질방 등을 갖춘 농업인건강관리실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484개소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2000년대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요의 다양화되었고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되었고 범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도사업내용에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생활개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 보조기구 활용 등 작업환경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 물을 쓰지 않고 호기성 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분뇨를 발효시키는 친환경화장실 설치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쌀 중심 한국형 식생활 정착지도, 여성농업인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조직활동 지원, 시범마을육성을 통하여 노인생활지도프로그램 지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역할 수행 등이다.

3. 농촌생활의 변천

가. 생활시간의 변화

농촌 여성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는 1966년(1966년은 농가주부만 해당)부터 직접 농촌진흥청에서 계획하여 시군 생활지도사에게 조사요령을 교육 한 후 농번기, 농한기를 정하여 해당 농가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즉 제사 및 결혼, 생일, 그 외에 장시

간이 소요되는 타지 외출 등이 있는 날은 피하고 가장 평상적인 날을 택하여 농한기를 고려하여 농가당 1~2일간을 관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가주부와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해 보면 총 노동시간은 주부의 경우 1993년에 9:45분으로 가장 낮고 1966년에 12:13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9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시간이 넘었다. 특히 주부의 농번기 총 노동시간은 1979년에 가장 많은 14:14분으로 가장 많고 1988년에 약간 줄어 12:44분을 제외하고는 13시간 정도를 꾸준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남편은 1979년에 가장 많은 12:48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도에 12시간이 못 미쳐 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사노동 참여가 낮고 사회문화적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도 5시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에는 가사노동시간이 처음으로 5시간 이하로 줄었다.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농가소득의 증가는 주거환경개선, 가정 편의용품의 다량 보급 등으로 이어져 가사노동이 1966년에 8:47분이던 것이 1979년에는 5:40분으로 무려 3시간 7분이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농업노동 시간은 2시간 2분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노동시간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문화적 시간인데 농가주부는 상대적으로 남편보다는 사회문화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1966년에 1:19분에서 1988년 이후부터는 3시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농촌주부들 중에 비문해자가 많았고 특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 없었던 상황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시간의 감소, 농가소득의 향상, 매스미디어 발달 등으로 사회문화적 욕구의 수용능력이 커졌고 여가를 활용할 여건이 많이 개선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가주부 및 남편의 생활시간

단위 : 시간, 분

구 분		연 평 균		농 번 기		농 한 기	
		주 부	남 편	주 부	남 편	주 부	남 편
총 노동시간	1966	12:13	-	13:19	-	11:08	-
	1979	11:09	9:23	14:14	12:48	8:04	5:58
	1983	10:20	7:15	13:23	11:51	6:07	2:39
	1988	10:09	8:27	12:44	11:25	7:35	5:29
	1993	9:45	8:29	12:58	11:56	7:22	5:02
	1998	10:52	9:04	12:58	11:50	8:45	6:18
농 업 노동	1966	3:27	-	5:23	-	1:31	-
	1979	5:29	8:02	09:46	13:32	1:13	3:32
	1983	4:45	6:43	8:54	11:28	0:35	1:59
	1988	4:45	7:27	7:52	10:47	1:39	4:07
	1993	5:18	7:43	8:24	11:35	2:12	3:51
	1998	5:55	8:35	8:52	11:35	2:57	5:35
가 사 노동	1966	8:47	-	7:56	-	9:37	-
	1979	5:40	1:21	4:28	0:16	6:51	2:26
	1983	5:00	0:32	4:29	0:23	5:32	0:40
	1988	5:24	1:00	4:52	0:38	5:56	1:22
	1993	5:02	0:46	4:34	0:21	5:30	1:11
	1998	4:35	0:29	3:58	0:15	5:11	0:43
사 회 문 화 적 시 간	1966	1:19	-	1:05	-	1:32	-
	1988	3:42	5:15	1:31	2:20	5:53	8:10
	1993	3:32	5:06	1:35	2:20	5:39	7:53
	1998	3:09	3:40	1:31	2:21	4:48	6:59
생 리 적 시 간	1966	10:28	-	9:35	-	11:20	-
	1988	10:08	10:16	9:45	10:15	10:32	10:21
	1993	10:08	10:23	9:27	9:41	10:49	11:05
	1998	9:59	10:18	9:32	9:49	10:27	10:43

※ 자료 :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각 연도

농가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 분담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여성 연령층에서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여성 혼자 가사를 수행하고 있다.

나. 영양 및 건강관리 실태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주부의 농작업 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식생활관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노동의 대부분은 시한성이 있어서 가사노동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농업노동의 증가는 식생활관리의 소홀로 이어져 가족원의 영양 및 건강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1) 식생활 변화

농업인의 영양섭취 실태는 권장량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영양소 섭취실태 조사는 농촌생활연구소에서 1982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영양소 섭취실태에 있어 1인 1일당 영양권장량에 비해 단백질, 지방, 비타민 C의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지방의 섭취량은 1982년에는 권장량의 41.9% 수준이었으나 1997년에는 88.5%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인의 지방섭취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외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B₂ 로 섭취권장량의 80~90%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농업인의 영양소별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1982~1997)

영양소	1982	1987	1992	1997
에너지	97.2	105.2	94.0	101.3
단백질	96.2	109.7	118.5	121.1
지방	41.9	57.6	71.3	88.5
칼슘	74.0	86.0	88.0	74.8
철	145.8	222.1	155.2	108.5
비타민 A	104.4	69.4	74.3	152.4
비타민 B ₁	133.3	127.0	119.6	127.9
비타민 B ₂	86.6	87.9	94.6	86.4
니아신	137.6	139.3	112.8	120.7
비타민 C	159.5	152.8	165.8	207.8

※ 자료 :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pp 2~3, 1998. 9월호

농민의 에너지의 영양소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7년의 경우 당질, 단백질, 지방 에너지의 섭취 구성비가 68:14.5:17.5로 권장비 65:12:20에 상당히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구성비가 1982년 조사의 8.4%에서 1997년에는 17.5%로 크게 늘어나 앞으로 농업인의 식생활에서 지방섭취가 적절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에너지의 영양소별 섭취구성 변화(1982~1997)

영양소	1982	1987	1992	1997
당 질	78.8	75.6	69.6	68.0
단백질	12.8	14.2	15.2	14.5
지 방	8.4	10.2	15.2	17.5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pp 3~5, 1998. 9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은 질병의 예방과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을 농업인 스스로가 갖도록 하고 가능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농업노동 참여의 변화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투하량을 보면 1965년 28.0%에서 2000년에 47.0%로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노동은 1965년 17.5%에서 1990년 55.4%, 품앗이 노동은 1965년 29.8%에서 1997년 64.1%로 급증하여 남자의 노동투하량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1986)에 의하면 농촌여성의 99.6%가 농사일을 하고 있고, 81.5%가 농업의 주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농업의 여성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농가 노동 투하량

(단위 : %)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여성	28.0	32.6	33.3	42.6	42.6	47.3	48.2	47.0
남성	72.0	67.4	66.7	57.4	57.4	52.7	51.8	53.0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 연도

타 부문 종사 여성과 비교하여 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평균	가정주부	취업여성	여성농업인	
			농번기	농한기
7.5	6.1	8.3	13.4	9.7

※ 자료 :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pp7~8, 2000

또한 영농형태가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가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크게 증대되고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농형태의 변화를 보면 '90년 논벼 69.7%, 원예 16.1에서 '99년 논벼 57.2%, 원예 29.9로 벼농사는 줄고 원예가 크게 늘었음을 볼 수 있다.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중의 변화도 볼 수 있는데 '70년 농업 종사자 412만 명 중 여성이 117만 명으로 28.3%였으나 '99년에는 농업주종사자 234만 명 중 여성이 123만 명으로 52.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업인의 건강 실태

그 동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농촌생활환경이나 농민의 건강도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의 증가에 따른 하우스병이나 농업노동의 과다로 인한 농부증, 농약·농기계 사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부증은 농민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서 오는 만성 자각증후군으로서 신경통, 류마티스, 고혈압, 심장장애 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부증은 도시지역이나 비농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비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부증(農夫症, Farmer's Syndrome)이란 장시간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전의 만성자각 증후군을 말한다. 비닐하우스가 늘어남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외의 온도차와 열악한 작업환경이 하우스병이라는 건강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증상들은 불량한 환경 하에서 특이한 작업자세를 취함으로써 오는 국소피로와 장시간 작업에서 오는 전신피로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능률적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피로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부증에 대한 연구는 1943년 일본 북해도의 농촌부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진단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근래 일본에서 농부증 호소율은 농촌사회의 변화와 함께 감소하고 있으나 건강지표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原田, 1985) 최근에 귀울림, 손과 얼굴의 피부병, 콧물·재채기 등이 새로운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다(吉田, 1993)

미국에서도 1700년 초반부터 농작업에 의한 위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먼지, 가축거름 및 퇴비에 많이 존재하는 박테리아 감염이 문제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 농업인의 재해 및 암 발생율이 일반인구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업인 직업병 문제가 집중 연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8년(맹광호)도에 강원, 충남지역 일부에서 연구된 것을 최초로 볼 수 있으며 농부중 양성율은 39.1%로 보고 있다.

농부중의 주요 원인은 농업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피로의 축적, 정신적 긴장,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사로 인한 영양부족, 불편한 작업자세와 고온 다습한 환경 등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뇨, 숨참, 불면증, 현기증, 복부팽창 8가지 증상을 체크하여 농부중 여부를 판단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건강증진 및 작업능률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1994년도와 1999년도에 농부중 실태를 1,000농가(영농유형당 200농가)의 경영주·주부를 대상으로 5개의 영농유형 [수도작, 과수, 축산, 노지재배(전작·특작·노지채소 포함), 시설재배(시설채소, 화훼 포함)]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1994년도에 농부중 발생율(평균)이 19.8%, 1999년도에는 평균 8.7 증가하여 28.5%로 나타났다. 남성은 7.6 증가하여 1994년 13.9에서 1999년에는 21.5%였으며, 여성은 10.1이 증가하여 1994년 26.4에서 1999년 36.5%로서 남성농업인에 비하여 여성농업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영농 유형별 농부중 분포

단위 : %

구 분	수도작	과수	축산	노지	시설	평 균
1994	22.3	20.7	12.9	17.4	23.8	19.8 (남 13.9 여 26.4)
1999	25.8	26.6	31.0	30.0	33.9	28.5 (남 21.5 여 36.5)

한편 농촌주부들의 농약살포 작업 참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연간 1회 이상 살포하는 농가주부가 77.6%나 되며, 그중 3~5회 살포가 25.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농가주부는 19.9%에 불과하였다.

농약살포 중 중독경험으로는 현기증을 느낀다가 34.8%로 가장 많고, 중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2.2%) 농약의 안전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농가주부가 농기계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26.6%나 되어 농가주부들에 대한 농기계조작 및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농가주부들은 농번기에 12시간 이상을 노동에 시달리는 힘든 작업 후에도 잠시 쉬지도 못하고 가사일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최근 1년 사이에 건강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한 부녀자가 64.4%로 건강관리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의생활 및 주거환경 실태

농촌부녀자의 영농참여 확대, 사회활동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 농촌생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1970년대 섬유공업의 발달로 기성복이 확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의 의생활 영위형태도 크게 달라졌으며 가족의 의복 대부분을 기성복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세탁기의 다량 보급은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많이 줄여 주었으나 1인당 합성세제 사용량은 1982년 2.1kg에서 1989년에는 5.9kg으로 늘었다

한편 영농형태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작업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를 살펴보면 농약중독 사고중 복장미비가 23.3%, 농기계 사고 중 불안전 복장에 의한 것이 4.5%(농촌영양개선연수원 농촌생활과학, 1990. 1992)로 나타나 앞으로는 영농형태에 따른 적절한 작업복의 개발과 착용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1990년대에는 농민의 건강유지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의복장비를 갖추도록 하었는데 농작모, 간단한 작업복, 각반·수반·앞치마, 농약방제복 등 만들기와 의복관리, 세제취급법, 소품만들기 등 합리적인 의생활 영위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환경문제가 범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개선과제에도 이와 관련된 과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몇 번 사용하여 못쓰게된 튀김기름에 가성소다를 섞어 만든 재활용비누 만들기, 지도와 세제사용법 등을 교재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음식물 안 남기 운동을 강조하였으며 음식찌꺼기 퇴비화 문제도 생활개선 관련 학회에서 주제로 하기도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에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이슈가 되어 국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일깨우는 데 한 몫을 하였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주택개량 및 농촌취락개선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농촌주택 부분개량사업도 추가로 실시되어 농촌의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주거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38.9%여서 도시의 11.4%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되며, 19평 이하의 소형주택도 68.6%로 도시 40.9%에 비해 많으므로 농촌의 주택은 도시보다 훨씬 오래된 노후주택과 소형주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주택편의 시설 현황을 보면 개량된 조리대 싱크대 등의 시설을 갖춘 입식부엌은 '85년 9.7%에서 1998년 현재 73.2%, 2000년도에는 89.6%로 향상되었고 목욕실이 있는 농가가 1985년 4.4%에서 1998년에는 73.7%로 크게 향상되었다. 변소시설은 정화조시설을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수세식 변소가 1985년도에는 7.2%, 2000년에는 52.2%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도시수준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이다.

주택 편의시설 현황(군부)

구분	부엌시설		목욕시설			변소시설		주거환경 주택편의 시설수준	
	입식	재래식	온수	찬물	없음	수세식	재래식		
농촌 (군부)	1985	9.7	90.3	4.4	6.5	89.0	7.2	92.8	9.3
	1990	28.9	71.0	14.6	6.8	78.6	14.3	85.7	21.5
	1995	74.0	25.7	60.7	6.4	32.9	43.8	55.8	
	1998*	73.2	-	73.7	-	-	54.8	-	-
	2000	89.6	-	-	-	-	52.2		

※ 자료 : 한국의 사회지표 * : 농촌진흥청 조사

특히 농가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우리 청에서 1983년부터 2001년도까지 172천 호에 2,817억원을 용자사업으로 지원하여 실시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개량을 하여 부엌개량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즉 취사시간 1일 20~40%를 절약하고 주부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사업 대상에 용자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저소득농가 등 소외계층의 개량이 많이 포함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0년도부터는 부엌개량과 목욕실을 같이 개선토록 하였으며 1996~1998년까지는 농가 재량에 따라 부엌+목욕실 또는 우리 나라가 자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도 보급하였다.

농촌의 생활환경은 주거공간과 생산작업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오염물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구조개선이 생활기반 조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 농촌여성의 역할 변화

농촌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면, 주로 농업노동과 같은 가치생산활동(Value productive activities)과 육아, 의식주, 생활관리 등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활동(Labor force reproductive activities)으로 구분되고, 기능적으로는 자녀 출산자, 노동자, 가정생활관리자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시대상황이나 사회구조, 문화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며 낸다(김종숙 1987). 농촌여성의 역할을 농업생산자, 가사담당자, 지역사회 활동자로 분석하고 있다(이효재·김주숙 1977에서 인용: 심미옥, 1997).

1970년대에는 농업에 있어서는 남편들과 함께 집안 농업에 노동력을 적극 제공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가사노동은 여전히 전적으로 여자들(농가주부와 기타 여자가족 등)의 역할에 속했고,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자모회, 계, 부녀회 등 다양한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마을 운동이 활발한 부락에서는 부녀회원들이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노동에 남자와 함께 그들의 노동력을 많이 제공하며 부락 발전에 남자에게 못지 않게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의 출입은 남자들의 역할로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녀회 사업을 회장 홀로 결정한다고 보는 회원들의 비율이 44.1%로 부녀회 활동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부의 소비권은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개 부인이 쥐고 있다 36.4%, 전부 부인이 쥐고 쓴다 14.7%로 절반정도의 부인이 소비권을 갖고 있었다. 남편이 쥐고 쓰는 비율은 35.6%로 1959년의 연구결과(고황경 외) 65.0%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준 것을 볼 수 있다. 집안 일의 결정권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옷을 사 입히거나 제사음식에 대하여는 부인 단독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모두 부인 단독결정 비율은 극히 적고, 남편이 결정하거나 부부공동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농촌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부부간의 권력구조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에서는(이한기, 1977)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소액물품구입에서 가장 높았고 비료, 농약구입에서 가장 낮았으며, 일반적으로 농사사항에 대해서는 부인의 권력이 낮았고 부부공동결정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남편우위의 권력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문영규(1967)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부인의 권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에서 여성의 지위가 신장된 것에 비해 농촌가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父)지배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죽, 1977, 허도회 1965)

1980년대에는 농촌가족의 기능 면에서 가장의 절대 권위적인 권력이 약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여권적인 차원에서 신장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왕인근(1983). 농촌부녀자의 의사결정참여도 분석 결과에서는 비록 부녀자가 주도권자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공동참여자로서의 부녀자의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 부녀자의 발언권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농협중앙회, 1984, 허도회). 농촌부녀자의 가정과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농촌생활에서 발언권이 약했던 주부의 지위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영농계획,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남편이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각각 40.0%, 27.5%,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는 비율은 45.0%, 50.0%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남편 혼자 결정하는 비율을 앞서고 있다. 생필품구입에 있어서는 여성이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52.5%, 공동 결정이 35.0%, 남편 혼자 2.5%로 여성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완 등(1985).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참여는 지위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농업

의사결정참여 특히 생산물판매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있어서는 토지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의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토지자산 소유가정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빈농층 여성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노동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강도 높은 노동이나 전문적 지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과 기계를 사용하는 일은 남성의 일로 간주되어 남성노동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자신도 그런 의식에 강하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투하량은 늘어나는 반면, 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는 하급노동자로 전락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사회활동참여에 있어서는 종래와는 달리 여성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커다란 변화이지만, 농촌여성 스스로가 조직을 이끌 능력, 자발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위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여성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 외부 결속집단이 부족하고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김영란, 1989).

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종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여성농민으로서 정체감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촌여성의 영농참여 증대에 따른 의식변화와 농가 내 역할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 판매활동과 가사와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참여도, 부인명의의 농경지소유현황으로 여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농협중앙회의 198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영농에 관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다소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보조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수준도 향상되지 못하여 생산성이 남자에 비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재량권의 크기와 직결된 농산물 판매활동에 참여한 농가부인은 38.8%였으며 부인명의의 농경지 소유도 14.0%로 미약하게 나타났다(김종숙·정명채, 1992).

영농형태가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농가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크게 증대되고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도에는 논벼 69.7%, 원예 16.1%에서 1999년도에는 논벼 57.2%, 원예 29.9%로 변화하였다. 1970년도에는 농업 주종사자 412만 명 중 여성 117만 명으로 28.3%였으나 '99년도에는 234만 명 중 123만 명으로 52.5%로 기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이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97년 농림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육성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경영활동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증대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식농업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농촌사회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유지와 연차별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마. 농촌사회에 대한 시각 변화

21C 시대를 맞이하여 우선 농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변화를 볼 수 있다. 우리의 농촌이 농업생산공간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농업생산 공간은 물론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유지 공간, 지역사회 유지, 환경적 특성을 보전하는 기능으로 농업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점차 농촌 Amenity의 충분한 공급을 고려한 환경농업정책의 실시 등의 다면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지원명분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 끌어낸 논리이기도 하다. UR 이후 농업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개별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명분을 찾는 것이 주요 농업선진국가들의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어 농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비교역적 기능, 다원(면)적 기능, 공익적 기능,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등 새로운 용어가 출현하였다

앞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격주휴무제의 확대, 토요일휴무제의 추진 등 도시인들의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농촌사회가 새로운 변모를 통하여 도시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할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원적 기능 확대와 관련하여 생활개선과제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2002년도의 새로운 과제로 채택되어 각 도에 1마을씩 1억원을 지원하여 마을별 테마를 발굴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곳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 있어 생활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실행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점이다.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사회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다(Peter F. Drucker)란 것이 강조되고 자연·여자·유색인·약자·빈자·무식자·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 증대되고 삶의 질 개선 관련 산업이 우리 나라 21세기 3대 신성장 유망산업에 포함(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총서 12) 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농촌진흥30년사, 1993, 농촌진흥청
2.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자취, 199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3. 한국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1979, 농촌진흥청
4.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993~2001, 농촌진흥청

5. 농촌생활과학, 1993~2001, 농촌생활연구소
6.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997, 2002, 농촌진흥청

<참고문헌>

1. 농촌진흥30년사, 1993, 농촌진흥청
2.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자취, 199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3. 한국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1979, 농촌진흥청
4.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997, 2002, 농촌진흥청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집, 2002, 농촌진흥청

제 2절 생활개선과제 지도

1. 식생활개선과 응용영양사업

가. 균형식 섭취와 한국형 식생활 정착

1950년대의 우리 농촌은 절대식량 부족으로 춘궁기에는 양식이 끊긴 농가가 속출하였고, 농사원이 발족된 후 식생활개선사업은 영양에 관한 새 지식과 농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영양손실이 적은 조리법 등을 지도하였다. 특히 속성 개량 메주와 채소 다루기, 분식장려 등의 과제지도를 통해 국민체위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뒤에도 식량이 부족하여 쌀 소비절약을 위한 대용식과 혼식 보급 등을 중점 지도하였고 압맥기의 활용법과 텃밭에서 영양식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고구마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사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우리 정부와 UNICEF, FAO, WHO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응용영양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의 식생활개선사업은 농업인의 영양개선에 역점을 두어 주곡 중심의 식사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주곡대체식품 개발보급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덜기 위하여 마을단위 공동취사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였고, 감자·고구마·토끼요리, 야생식용식물의 조리법 등을 개발보급 하였으며 계절적으로 과일 생산되는 과일·채소 등을 저장하여 연중 균형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병조림을 보급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농업인 들의 식생활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균형식과 식량 소비절약의 생활화,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목표를 둔 생활개선시범 마을을 선정하고 농촌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촌 부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주곡 대체식품으로 혼분식을 권장하였고 보리, 감자, 고구마 음식을 지속적으로 보

급하였으며 아동영양개선 시범마을에서는 임신, 수유부의 영양관리 및 이유식 등을 지도하였다.

1983년 이후부터는 쌀 재고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점차 서구식 식생활화로 인한 성인병 증가 등 새로운 식생활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쌀 중심의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었으며 '85년에 19.9%이던 음식물 쓰레기가 '90년에 27.4%로 증가됨에 따라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도시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농산물 애용을 권장하여 바람직한 식문화 정착에 힘썼다.

1990년 농업인의 식생활실태를 보면 영양소섭취는 권장량 대비 지방 49%, 칼슘 82%, 비타민 B₂ 88%이며 국민 1일 1인당 쌀 소비량은 '70년 136.4Kg에서 '80년 132.4Kg으로 줄었고 '90년에는 119.6Kg에서 '00년도에는 93.6Kg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하여 생활개선시범마을의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영양식품생산,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방법 개선, 식품의 안전관리 및 주방기구의 위생적 사용법을 지도하여 건강을 위한 균형식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쌀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식생활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93년도에는 쌀 소비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농산물 수입은 '85년 25억불에서 '92년 72억불로 증가하자 특·직할시와 각 도에 『우리농산물 장터』와 『소비자의 방』을 운영하여 우리농산물 애용 확대와 한국형 식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였다.

1996년도부터는 전통 장류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구명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우리 콩의 생산기반확대와 안전한 전통 장류 보급을 위해서 농촌여성들이 우리 콩으로 직접 담근 장류를 도시소비자에게 공급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통 장류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면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통식문화 계승과 향토음식의 지역 명품화 기반조성을 하고자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을 실시하여 향토음식 실천 생활화 및 보급운동 전개,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한 과제 연구·개발, 품질개선, 상품성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지원, 향토음식의 자료화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지역농특산물의 상품화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업인의 가공기술수준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어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를 지원하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보급에 온 힘을 기울여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사들로 구성된 전통음식·식품가공전문지도연구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식생활은 국민 생명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므로, 건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양식품생산과 균형식 실천,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쌀 중심의 한국형 식생활과 전통식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극대화가 강조되면서 자원의 소득화와 연계한 농산물 가공기술의 향상에 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나. 응용영양사업

응용영양사업은 1967년 7월부터 우리 정부와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협정을 맺고 당시 우리 나라의 곡물 편중 식사형태를 개선하고 영양식품의 증산과 식량의 자급, 국민의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약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특히 자력으로 식생활개선이 가능한 도시인에 우선하여 저소득층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 당시의 생활개선사업이 거의 식생활 분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점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생활개선사업에서 차지한 비중은 상당히 커서 예산과 전문인력, 기구, 차량 등의 획기적인 지원이 병행되었다.

① 주관 및 지원기관

- 주관 : 농촌진흥청, ○ 지원기관 : UNICEF, FAO, WHO

② 협정기간

- 본 협정사업 : 1967. 7 ~ 1970. 12
- 1차연장사업 : 1971. 1 ~ 1973. 12
- 2차연장사업 : 1974. 1 ~ 1976. 12
- 3차연장사업 : 1977. 1 ~ 1977. 12
- 4차연장사업 : 1978. 1 ~ 1981. 12

③ 협정내용

- FAO와 WHO의 공약 : 단기 전문가 파견
- UNICEF의 공약 : 물자, 기구 및 훈련지원
- 정부의 공약 : 지도요원확보, 공급물자관리 및 사업보고 이행

④ 사업개황

제 1차 사업이 시작되는 1967년 사업계획에 착수하여 1970년 말까지 응용영양사업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171개의 응용영양시범부락을 선정, 기초조사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양식품 생산지도를 하고 영양개선의 집과 식품가공의 집을 설치하여 식품 공동가공, 탁아 급식장 및 영양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였고, 위생우물을 설치하였다. 또 교육에 활용할 각종 교재의 제작 배부와 지도요원을 확보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기초를 굳건히 닦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1971년부터는 1차 연장사업에 들어가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별히 식량자급을 위한 감자류 증산 및 감자·고구마 요리 보급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업인의 영양개선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단기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연장사업을 추진하던 중 1978년 4차 연장사업에 들어가면서 아동의 영양상태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응용영양시범마을은 지방에 이관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영양개선시범마을의 육성을 추진하였다.

2.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주거환경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모든 생활을 포용하고 있어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이러한 주거환경 사이에는 끊임없이 변화가면서 동적 균형을 유지해 간다.

1950년대 우리 농촌의 가옥은 전형적인 초가로 벧짚이엉으로 지붕을 덮고 방은 비좁았으며 부엌은 아궁이가 낮고 땀감을 한쪽에 저장하여 불편하고 비위생적이었다. 그리하여 좀더 유용한 가옥내부구조를 만들어 농촌주부들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주방, 변소, 우물 및 아궁이 개량에 힘썼으며 흙벽돌을 만들어 농가주택을 개량하도록 지도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서는 난방연료의 효율화를 위한 개량온돌보급과 부엌 시설 개량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는데 이 때는 세멘트 벽돌을 주요 자재로 썼고,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중앙 2개소, 각 도에 40개소를 전시사업으로 처음 설치하였으며 '69년에는 각도 시범마을에 20~40호씩 집단적 설치, '73년에는 10,704개소로 크게 늘어났으나 생활지도사에게 힘겨운 과제였고 메탄가스 탱크 위를 씌우는 덮개의 재질 또한 미흡하여 농업인의 호응 도도 좋지 않아 중단되었다.

농촌도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거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부녀자의 농작업에의 참여도가 증대되고('75 : 33.3% → '85 : 42.8%) 젊은 층 부녀자의 농촌 정착기피 경향이 늘어나 능률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생활개선사업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1980년대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비중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83년부터 '89년까지 56,000여 호에 농업개발자금을 지원하게되면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도를 부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수시설과 작업대 설치 등을 집중 지도하였다. 농가에 지원된 9~50만원 정도의 융자금은 전체 부엌개량을 하기에는 미미한 금액이었으나 전통적인 가옥구조와 주거생활의 관습을 깨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는 농업개발기금으로 40,000호를 개량하였는데 단순히 수도 끌어들이기와 작업대 설치의 차원을 넘어 바닥 평면화를 포함한 완전 입식부엌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 때는 호당 융자 액을 12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지방비지원개량도 20,730호에 달했다. 입식부엌과 아울러 목욕실을 개량하는 종합적인 개량이 되도록 중점 지도하였으며, 부엌을 단순한 가사노동 공간이 아닌 식사와 가족간유대의 장소, 휴식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 시설을 전국에 4개소 시범설치 하였다.

또 특기할 것은 '90년도부터 '91년까지 고향주거환경개선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출향가족, 인사,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301억원 상당의 기자재와 성금을 기탁 받아 16,608

호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운동으로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부터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용자금이 지원되었으며 '96년부터 '98년까지는 부엌과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중 농가의 실정에 맞게 택일하여 실시하였고 그 이후는 부엌개량과 목욕실설치만 하였다.

1998년부터 사업량이 차츰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지방 자율화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주거환경개선지도는 총 2,910억원을 용자지원해 약 172,558 호를 개량하였고 이를 통해 부엌과 목욕실 등을 자체적으로 개량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

농가의 부엌과 목욕실 개량에 비해 문화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여전히 불량하여 '01년도에 처음으로 물 안 쓰고 냄새 안 나는 친환경 화장실설치를 위해 532백만원을 190농가에 280만원씩 용자지원 하였다. '02~'03년에는 1,570백만원을 628개 마을단위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개소당 400만원씩 지원하였다.

친환경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의 방류수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원순환방법을 이용한 화장실이며 농촌수질환경오염 방지로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어 앞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할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개선사업의 간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동시에 여성농업인의 가사 노동시간을 절감해주는 큰 효과를 가져 왔다.

1998년 우리 청에서 조사한 주거환경개선실태를 보면 부엌개량은 1987년 49.3%에서 73.2%, 목욕실설치는 1987년 12.8%에서 54.8%로 향상되었으니 이는 생활개선사업의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농가내부의 개량뿐만 아니라 마을전체의 환경개선도 해야 하며 특히 그린투어리즘에 대비하여 전체적인 조성이 요구된다.

3. 농작업환경 개선과 의생활지도

가. 농작업 환경개선과 노동관리지도

1970년대에 이르러 전근대적인 자급 농에서 상업 농으로 영농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업노동 종사일수가 늘고 있으며 특히 농가주부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가되어 농작업환경개선과 노동관리 지도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농사일과 피로회복 즉 피로의 종류와 원인, 피로예방법과 회복법 등이 각종 교육을 통해 보급되었고 '89년에 조사한 농가주부의 작업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는 노동위생과제 지도방향 설정과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990년도부터 '00년까지 비닐하우스증 예방을 위해 설치한 중간휴게실을 1,960개소,

마을공동쉼터 2,043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꾀했다.

1994년에는 5개 영농유형별 1,000가구의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민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농작업별 안전한 작업관리 지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농작업환경시범마을 30개소를 육성하였고, '95년도부터 '00년까지 지방지원 농작업보조기구 및 피복장비 428,525점을 개발 보급하여 쾌적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였다.

1996년 농작업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국비 28억원을 80개소에 35백만원씩 지원하여 체력단련실, 찜질방, 목욕실, 휴식실 등의 시설과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하고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97년에도 35백만원씩 82개소에 28.7억원을 지원하였다.

1998년도부터 '03년까지는 개소당 50백만원씩 582개소를 지원하여 총 744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으며 99~00설치마을 138개소의 활용현황 평가 결과 건강관리실 활용 후의 건강증진 효과는 94%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게 나타났다. 건강관리실의 운영비재원은 마을기금, 회비나 사용료 부과 등이 주축을 이루었고 식품가공실 등 공동수익시설과 운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는 태양열온수기, 심야전기시설도 권장하였다.

2001년 생활개선실적발표대회시에는 건강관리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건강생활체조, 추진사례 등을 발표하여 건강에 관한 관심을 모았으며, 이 때부터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과 버섯·토마토·오이 등의 선별·포장작업개선을 위해 선별대, 포장대, 조정대, 자바라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 선별작업장의 일관 무동력 시스템을 설치하는 농산물 선별작업장개선시범사업이 중앙의 지원을 받아 중점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나. 의생활

1950년대에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였으므로 보다 경제적인 의복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실물전시를 통한 바구니 앞치마, 간이 작업복, 아동활동복, 기초편물과 밥상덮개 만들기를 보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960년대에는 작업복과 평상복의 구별이 없고 다양하지 못했으므로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 즉 일하기 편리한 작업복, 방한복, 평상복, 기타 기능복 만들기를 지도하였다.

1970년대의 의생활은 후반기에 들어서 피복산업의 발달로 화학직조의 대량보급과 기성복 제조의 급증에 따라 직물 취급법, 농작업의 능률화와 피복비 절감을 위한 개량 작업복을 새마을 작업복과 농기계 작업복으로 구분하여 보급시켰다.

1980년대 의생활은 자가 제작노동이 사라지고 기성복이 대중화되었으며 세탁기의 공급으로 세탁에 소모되던 가사노동시간도 많이 단축되었다. 반면 농촌부녀자들의 노동참여율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부녀자의 건강관리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농작업복과 농작업모, 각반, 수반 등의 작업장비가 중점 지도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는 헌옷 재활용, 생활소품 제작 지도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아름다운 집안을 꾸밀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합성세제의 사용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부터 알맞은 양의 세제 쓰기, 세제 취급법,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을 꾸준히 교육하여 세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산업화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생활기술의 명맥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고 합성섬유제품의 환경오염이 생태환경보존문제 유발에 일조를 하게되어 천연자원을 소재로 하는 전통직물과 염색법 중심의 전통의생활 기술을 실용화하게 되었다.

4. 가계관리와 농외소득활동

가. 가계관리

농가생활의 과학적인 운영과 가사노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61년도부터 생활개선 전시 농가에 대하여 가계부 기록 지도를 하였으나 금전출납부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83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용 가계부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1962년부터는 가계부 기록 외에도 금전 및 노동시간의 과학적인 관리와 가족관계 개선을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절미저축, 가정의례 간소화 지도, 가사분담과 노동관리 등의 과제 개발지도, 부역의 작업대 배치 및 구조개선, 물품관리 및 작업자세지도 등의 과제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과제별로 점차 실천율이 향상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으나 실천율은 약 50%에 그쳐 농가에서의 가계관리 과제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단편 과제 중심의 사업에서 1969년 이후에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한 종합과제지도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에는 농가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관리과제 보급의 기틀을 다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60~1970년대와 같이 가계부 기록 지도와 병행하여 농가의 생활설계(미래를 예측하며 살기 위한 살림 계획)의 실천과 가사분담, 화목한 가족관계 이루기, 알뜰살림 사례발굴 및 홍보, 생활예절, 자녀교육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1964년, 1983년, 1988년에는 3개 도를 각각 선정하여 각 45호, 54호, 108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4년에는 농가주부의 동선조사를, 1986년에는 농가생활 진단조사를 전국 농가주부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과학적이면서도 농민이 원하는 내용을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부터 농가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가계관리를 위해 농가 실정에 맞는 가계부를 제작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도에 주력하였으며 2000년에는 7,500부를 지원하였다. 또한 가계부 기록의 활성을 위해 1991년부터 농가용 가계부 기록 경진을 실시하여 우수자를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농가용 가계부사용상의 문제점보완과 금후 방향설정을 위하여 가계부 기록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2001년 농가가계부는 농업경영비와 가계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지의 수지 및 자가생산물 소비량 처리방법을 간소화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하여 1,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농가용 사이버가계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생활지도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가계부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도

농가에서의 부업지도는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생산화하고 농한기를 줄여 영세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65년도에 경기, 전북 2개 지역에서 122명에 대한 농가부업기술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기회로 1970년까지 농가부업단지 조성을 위해 생활지도사 및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지도한 주요 가정부업은 수공예, 수편물, 훌치기, 죽세공, 자개 박이, 조화, 보세가공 등 다양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업기술훈련에 대한 문제점으로 단기훈련으로 숙련기술자 양성이 곤란하였고, 판로개척이 부진하였으며, 공동작업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부업기술 지도 및 훈련사업 중 부업단지 조성과제는 1968년부터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지도사는 부업단지의 기술지도 협조를 하는 정도에 그쳐 생활개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 10여 년의 공백기(농촌진흥청 지도국 지역개발과와 농협이 잠정적으로 실시하였음)를 거치고서 1989년부터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실시되게 되었다.

농촌여성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 농촌여성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부터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 시범지역 5개소로 시작하여 '03년까지 총 169개소에 개소당 8~40백만원씩 총 4,85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의 사용은 공동작업장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구입, 포장지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쓰였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외소득활동기반조성을 위한 자본 및 기술지원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 및 판매를 하였다. 시작할 때의 사업 종목은 김치가공, 도토리묵 가공, 매주 제조, 농산물 건조가공 등으로 지역내의 생산물 이용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소득효과가 낮은 편이어서 점차 사업종목을 다양화하여 현재는 한과류, 전통장류, 잔치음식, 음료류, 천연염색제품, 전통직물직조 및 생활용품제작 등에 이르고 있다.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대표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

하여 제품생산기술의 향상과 유통, 정보교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통식품 인증을 받거나 해외수출까지 하는 사업장도 생겨났다.

1994년에는 일감 갖기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후생매점에서 상설 판매를 하였고 철도청 연금매점에서도 특별 판매전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실적발표회, 각종 중앙 및 지방자치행사시에도 전시·판매를 실시하였다. 또 1995년에는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와 주부교실중앙회 및 우리음식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우리 농산물, 우리 맛 나눔의 장 행사를 지원하여 도시소비자에게 농촌여성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일감 갖기 생산물의 판매는 물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6년 1차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생산제품 12개 종목 229개 품목을 수록한 판매안내집을 제작하여 시지역 아파트단지과 마을인근 소비자와의 연결자료로 활용하였고, 2001년에 2차 안내집 『진품 그대로』 1,000부를 발간하여 국정홍보처와 소비자단체에 배부하였다.

1998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가소득정보의 서브메뉴에 농촌여성일감제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관계관을 초청하여 일감제품 설명회를 가졌고 2000년에는 71개소의 일감사업장에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여 생산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 농촌여성의 정보화 촉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업장은 평균 한 해 농가당 6,60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사일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연중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농촌여성들이 소규모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고품질제품 생산기술과 경영능력도 부족하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 중앙에서는 라디오,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기술교육, 품목별 연구회운영, 포장개선과 브랜드 개발 등의 품질향상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대표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과와 된장 품목을 중심으로 '02년부터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5. 농번기 탁아소 설치 운영

농번기탁아소는 1960년경부터 4-H여성지도자와 4-H구락부 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1963년부터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139개의 탁아소가 설치되었고 보모 수는 145명이었으나 시설도 미비하였고 보모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탁아소수와 보모 확보를 늘려갔으며 새마을운동으로 마을마다 건립된 새마을회관을 장소로 확보하고 놀이시설도 갖추어 기반을 다져 갔다.

1972년에는 7,679개소에 272천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생활지도사당 25개 탁아소를 담당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놀이기구조차 변변치 못해 농번기 탁아소에 놀이기구를

공급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대한일보사 주최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놀이기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974년까지 그림책, 색연필, 놀이기구 등 80만여 점과 370만여 원이 수집되었다.

1976년부터 가을걷이가 끝나면 지방자체로 농번기 탁아소 어린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유아와 부모들의 한마당 잔치를 벌이는 등 갖가지 교육행사를 개최하여 지원단체와 농민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번기 탁아소의 보모는 반드시 4-H 과제 중 농번기 탁아소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고 매년 개최되는 4-H 경진대회에도 출전하도록 지도하였으므로 이 사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1978년에는 보모수가 11,830명이었으며 이 때 보모수당을 지급한 탁아소는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수당 지급범위도 5,000원 미만이 39%나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탁아소의 운영을 체계화시키고 보모수당의 현실화에 주력하여 농림수산부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 지도교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역에 따라 오르간, 녹음기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정서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장래 이 나라를 책임질 어린이를 담당하는 보모의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중졸 72%)과 차츰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보모의 자질향상 대책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무부 및 문교부와 협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유아교육학과(초급)를 신설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농번기 탁아소 설치지도의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유아교육 통폐합방안(1982.1.29)에 따라 내무부에 본 사업을 1982. 2. 6일자로 이관하고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농번기 탁아소 설치지도의 막을 내렸다. 유아교육 통폐합방안에 따른 업무주관 부서와 농번기 탁아소 지도 실적은 표와 같다.

유아교육 주관부서

당 초		통 폐 합 후	
유아교육별	주 관 부 서	유아교육별	주 관 부 서
유 치 원	문 교 부	유 치 원	문 교 부
농번기 탁아소	농촌진흥청		
어 린 이 집	보건사회부	새마을 유아원	내 무 부
새마을 유아원	내 무 부		

6. 농촌청년 성혼 돕기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후계자, 4-H회원 등 농촌 청장년이 늘고 있어 이들의 결혼을 적극 도와주고자 1986년부터 182개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성혼상담실을 설치하고, 신랑교실을 운영하며 만남의 장을 개설하는 등 농촌청년성혼돕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혼농가에는 주거환경개선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여성이 싫어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또한 농촌청년의 결혼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성혼 돕기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1989년 10월과 199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청년 성혼 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90년 6월에는 농촌의 미혼남성과 도시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청년성혼돕기 사업의 평가와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복지연구회에서는 우리 청의 협조로 중국 교포처녀와 농촌청년의 결혼을 추진하였는데, 18쌍 중 11쌍이 성혼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7. 농촌노인의 능력발휘 지원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농촌노인의 역할개발과 건전한 농촌가정을 육성하고자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육성하는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93~'95년까지 제 1차 시범마을을 완료(30마을)하고 3년간의 육성결과를 평가 조사한 결과 대상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도활동에 흥미를 느꼈으며 마을주민의 호응 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제 2차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109마을, 96~98)을 선정하고 노인교실, 공동부업활동, 건강증진활동, 봉사활동, 전통문화 전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1999년부터 제 3차 시범마을 109개소를 선정하여 2001년까지 218백만원을 마을당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농촌노인 능력발휘 지원을 위한 과제개발 협의회를 담당공무원 53명이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였고 2001년에 3년간의 활동사례와 농촌노인 전래솜씨작품집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2002년부터~'04년까지 3년간 육성할 제 4차 시범마을 110개소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8. 여성농업인 정보화 촉진

정보화 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지원도 미약하여 여성 정보화지수('97 한국전산원)를 비교해 보면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32이다. 한 조사결과에서는 연령별 정보격차가 심화되어 10대를 100으로 볼 때 → 50대 이상에서는 30.9(불평등지수 : 69.1)이며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인터넷을 알고 있고(47.3),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지만(47.4),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8.7, 실제 이용하는 수준은 8.6이다.

2000년~2003년도까지 1,585명에게 컴퓨터를 지원하였고 정보화의 취약계층인 여성 농업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314명에게 컴퓨터 구입자금(대 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에 참여케 함으로써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고, 일감 갖기 사업이나 농업의 경영관리, 전자상거래, 상품홍보, 정보수집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중앙단위에서는 여성농업인 329명에게 7기에 걸쳐(3박4일간씩 합숙) 인터넷통신활용과 출하지원정보, 농산물전자상거래론 등을 교육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2기에 걸쳐 69명의 생활지도사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 71개소와 향토음식연구회의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였다.

2000년도 시범사업대상자의 활용 현황을 평가한 결과 91%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컴퓨터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없어졌고 농산물 및 일감 갖기 생산제품 홍보·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자기로 인해 주위사람이 컴퓨터를 구입 활용하게 되었다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농촌생활문화지도

1994년 생활예절로 시작한 과제가 점차 발전하여 향토유물관설치, 전승놀이 및 생활체육지도, 내림솜씨 및 전통생활유품전수교육 등을 지도했다

2000년대 들어 농촌고유의 전통문화의 발굴·전수와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민속웃놀이, 풍물 등 전승놀이를 1,603회 35천명에게 전수하였고, 생활체육 1,151회 34천명,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257회 48천명에게 실시하였다.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여 농외소득자원화하기 위하여 농촌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1회(45명)실시하였고 농촌의 내림솜씨 400부, 농림부산물이용 천연염색600부 등 전통생활문화지도교재를 배부하였다.

2001년도에는 2002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예산을 9개소 9억원 신규 확보하여 사업지역선정에 따른 설명회와 육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촌활력증진의 모체가 될 농촌전통테마마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0.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및 실적발표회 개최

가.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식생활개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가정관리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고루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 들의 다양한 욕구에도 부합하였다.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과제를 지원 받는 동시에 생활개선부를 조직 육성함으로써 스스

로 생활개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길러지도록 하며 아울러 마을주민의 생활개선 의지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6차에 걸쳐 8,180개 마을 122,700호의 실천농가를 육성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지방자율로 육성하게 되었다. 시범마을은 농촌을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맞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개선 주요과제를 중점 보급하여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에서 실천할 생활개선 과제는 주로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어 최근에는 마을 생활개선회원들을 주축으로 더욱 활발해졌으며 농가단위는 주로 기본과제를 지도하였고 마을단위로는 건강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 잘사는 마을, 전통을 지키는 마을로 육성하였다.

◇ 생활기술과제

의 생 활 : 기능별 농작업복, 의복선택 및 관리법, 폐식용유를 이용 비누 만들기, 전통의생활기술의 실용화로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천연염색직물이용 선물용품 및 체험상품개발 등

식 생 활 : 영양식품 생산 활용 및 균형식 섭취, 식품 조리·가공·저장법 등

주 생 활 :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목욕실 설치, 가정미화 등

노동위생 : 비닐하우스내 건강보호 및 농약안전사용, 농부중 예방 등 건강관리 등

전통문화 : 향토음식, 전래놀이, 생활예절, 전통규방공예제품 등

◇ 생활경영과제

가정관리 : 농가용 가계부 기록 및 생활설계 등

가족관계 : 건전한 가족관계 확립, 자녀교육 등

농가경영 및 소득증대 :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합리적인 농업 및 가정경영 등

생활개선 우수시범마을을 뽑아 시상을 하고 현지견학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개선 실천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나.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196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시흥군 자경리에서 농촌생활개선실적 현지 발표회가 농사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현지의 생활개선상황을 인근 농민과 각 계 인사에게 직접 보임으로써 생활개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발표회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므로 1963년부터 1965년까지는 도별로 개최하여 1964년에는 10,332명, 1965년에는 7,201명이 참여하였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는 시군으로 확대하여(1966년 42개소, 1967년 45개소) 현지발표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생활개선구락회원의 과제활용 의욕과 인근농민의 개선의욕을 고취하였

으며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대회 명칭과 내용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농촌여성들의 숨은 요리솜씨 발굴과 전승요리에 대한 요리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였고 이것이 파급효과를 나타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99년에는 농촌생활기술 나눔의 장이란 명칭으로 전통음식 세미나 등 교육행사와 일감제품·전래솜씨작품의·전시 판매, 생활개선사업사진·여성농기계 등을 전시하였으며 건강관리지도실적발표로 농작업 체조 경연을 벌여 참가자의 많은 관심을 얻어냈다.

2001년 생활개선실적발표대회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며 개최되었다. 쌀 음식 전시와 쌀 소비촉진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생산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였으며, 농촌노인들이 보유한 전래솜씨작품을 모아 전시하였다. 현장경진으로는 컴퓨터활용, 농촌여성체조를 실시했는데 특히 컴퓨터 활용 경진은 컴퓨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농촌여성들이 각 급 단위 교육을 통해 익힌 실력으로 임하여 농촌여성 정보화의 결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직화 되어 교류가 뜸했던 중앙·도·시군 단위 생활지도직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정보를 교류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참고문헌>

1. 농촌진흥30년사, 농촌진흥청, 1993
2.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자취,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1993
3. 농촌지도사업보고서, 농촌진흥청, 1990~2001
3. 한국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농촌진흥청, 1979
4. '98농가주거환경실태, 만족도 및 개량희망공간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1998

제 3 절 생활기술교육

1. 생활개선 과제교육

농촌여성들은 지도사업이 사회교육사업임을 감안 할 때 소외된 집단 중 농촌사회에 없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고객이었다. 특히 한국 동란 후의 식량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부족과 경제적 불안정, 잠재실업 등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농촌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은 대단히 훌륭하였다.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의식교육에서부터 보리와 밀가루를 활용한 혼분식(混粉食)의 실천, 발효기간을 단축하는 개량메주를 활용한 장 담그기, 바구니 앞치마 등 농작업복 개량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체식품의 개발 및 보급, 농촌 자원의 적극 활용, 가축의 분뇨 발효 중 나오는 메탄가스를 취사연료로 활용하려고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가축 분뇨가 충분하지 않아 그다지 성공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교육교재로는 농촌생활개선지도교재를 발간 활용하였다. 생활개선구락부 중견지도자에게 각종 실습훈련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도에 생활관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생활관의 설치는 생활개선구락부 회장 및 자원지도자에게 각종 중점과제에 대한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귀향 후 단위구락부 부원들에게 전달 교육케 함으로써 그에 대한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농촌식생활 및 영양개선을 위한 오지마을 주민 교육용으로 식생활교육차 12대를 FAO/FFHC에서 기증받았다. 1976년에는 경기, 전남, 경북도원에 3대, 1979년에는 각도에 1대씩 9대를 배정하였다. 식생활 교육차에는 마을에 가서 직접 조리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가스렌지를 비롯한 각종 조리도구를 비치하여 농촌지도소에 오기 어려운 마을 주민이나 제철 식품을 활용한 조리를 빨리 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식생활 교육차 순회교육은 특히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 및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그 주요 교육내용은 식량절약 및 식생활 개선의 기본 사항, 개발요리, 향토요리에 대한 조리실습, 영양식품 생산활용지도 그리고 식품 조리 가공 저장법 등이었다. 이 순회교육을 통하여 교육결과물을 실제로 전시하는 실물전시, 교육생이 많을 때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범을 보여주는 연시와 강의 또는 연시를 통해서 내용전달이 어려울 때 많이 활용하는 시청각 기자재 등의 활용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양개선 교육은 물론 생활개선 과제도 함께 보급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84년부터는 생활개선지도 과제를 한 마을에 중점 투입하여 종합적인 마을로 육성하고자 1983년부터 3년 계획으로 '생활개선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6차에 걸쳐 2000년까지 총 8,180마을을 육성하였다. 1990년부터는 생활개선 과제의 종합적인 보급을 한다는 의미로 식생활 교육차를 '생활개선 교육차'로 명칭을 바꾸고 식생활개선 교육 외에도 가정관리, 노동위생, 의생활, 주거환경개선, 취미교양과제 등 다양하게 교육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농촌사회여건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여성들의 역할도 영농참여, 지역사회활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교육교재로서는 식생활 교본, 농번기 탁아소 교본, 어린이 영양지도 등의 단행본과 보리혼식·병조림 등 각종 요리 만들기, 감자·고구마 요리 등 대체식품 요리법, 보리된장 만들기, 작업모 쓰기 등 리후렛, 새마을 농번기 탁아소에 관한 패도(1980, 커다란 흰 종이에 교육내용을 기재하고 위에 막대기 2개를 바깥쪽에서 대어 교정시킨 것으로 교육 교재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식량절약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1980년대 교육 시설로서 농촌여성들의 조리실습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리실 겸

단체급식장 시설을 각 시군 농촌지도소와 도원에 모두 설치하였고 매년 10~12개소씩 보수하도록 하였다. 1985년, 1986년에는 실적발표회에서 입상한 향토요리·개발요리를 모아 '식생활 개선을 위한 향토요리 개발요리' 책자를 각각 5,000부, 4,000부를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1990년도에는 중앙의 조리실을 폐쇄하였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중앙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조리실습 등 현장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였다.

2. 농민후계자 가족교육

1983년부터 1987년까지는 농민후계자 부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도 농촌진흥원에서 8월~9월에 3~4일간 합숙교육을 시군농업기술센터(당시는 농촌지도소)에서는 1일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균형식 섭취 및 영양식품 생산, 농작업모 쓰기, 부엌·변소개량(1987년 교재를 살펴보면 변기 뚜껑 설치, 환기창 만들기, 바닥을 타일을 깔아 깨끗하게 하고, 조명등 달기, 파리, 모기의 접근 금지를 위하여 창문에 방충망 만들기, 세면대 설치하여 등) 식품가공, 농약과 농기구 정돈, 농사일과 피로회복, 육아, 생활 예절 등 농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1988년부터는 도단위에서 실시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에 흡수되어 실시되는 대 전환이 있었다.

3. 생활과학기술교육

1987년에는 그동안 시군, 도에서 각기 특성을 살려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과제교육을 중앙에서 총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수립하여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87, 1988 2년간은 중앙단위에도 교양강좌를 개설하였고, 도단위에는 농촌여성특별교육, 시군단위에서는 농촌여성과제교육, 농촌여성교양강좌 과정의 운영이 정착되었다. 1989년부터는 중앙단위에는 교양강좌를 전환하여 농촌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300여 명 정도를 고정 인원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활과학기술의 주요 과목으로는 정신교육, 생활기술, 영농기술, 가정관리, 취미, 오락, 교양 등 종합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참여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기초적인 내용에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발전되도록 하였다. 교육의 주 대상은 지역 내 농촌 여성 중 생활개선 시범마을 실천농가 주부, 생활개선실천요원, 농민후계자 부인, 새마을청소년회(4-H) 여회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도원 및 시군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 시설을 활용하고 교육목표, 과정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1987, 1988년 2년간은 도단위에서 각각 45,971명, 35,277명과 시군단위에서는 373,565명, 178,349명 등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 데서 약간은 무리가 따랐다.

아울러 1983년부터 생활개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 지역 주부를 포함시켜 식

생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식량절약 및 식생활 개선, 개발요리, 병조림 만들기 연시, 교육영화 및 슬라이드 등을 상영해 주었다.

시군 농촌지도소 및 도 농촌진흥원에서 과학적인 설비와 기구개량으로 채래식 취사 급식시에 손실되는 식품소비를 방지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된 영양권장 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1973년부터 조리실검 단체급식장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단체급식장에는 영양사1인, 조리사 1인 조리보조원 3인, 청소 및 잡역부 1인 등 급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조리된 음식을 스스로 가져다 먹는 급식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 단체급식장은 1974년 국비 40만원, 1977년에 80만원, 1984년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1980년까지 총 142개소에 설치 지원하였다.

1980년대에도 조리실검 단체급식장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91개 모든 시군과 각 도에 지원하였고, 1983년부터는 연간 10여 개 정도씩 그 시설을 보완하도록 추가지원 하였다.

1987년에는 그동안 식생활 및 영양개선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개선 전반에 걸친 과제를 보급하게 되었고 더욱이 농촌사회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여성의 역할과 요구가 다양해졌으므로 농촌여성들이 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정운영, 자녀교육, 취미교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시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조리실습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조리실검단체급식장을 '생활과학실습실'로 확대 개편하여 조리실습은 물론 의생활 및 농작업, 주생활 등 생활개선과제의 이론, 실습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지원하였는데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총 113개소의 생활과학실습실을 지원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농업인의 농특산물 및 전통식품 가공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농특산물의 가공기술 교육 및 전수 기반 조성으로 농특산물 및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28개소 시군농업기술센터(구 시군 농촌지도소)에 농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하였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교육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의 농촌여성 단체 및 농가 공동 가공교육, 농업인에 대한 가공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도부터는 바로 전년도에 설치 한 가공실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1개소당 5백만원 씩의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소비자들의 천연소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2000년도부터 천연염색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과잉의 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설탕의 섭취 등 식생활의 불균형이 주원인이 되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성인병이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인의 변화 양상이 점점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병 등 성인병이라는 만성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53년도에는 결핵, 장관염병, 뇌혈관질환 순이었으나, 1999년 1년 동안 우리 나라 국민이 신고한 사망신고

서의 내용 중 사망원인항목을 집계한 것에 따르면(통계청, 농촌진흥청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먹은 것이 당신 자신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다. 농업인의 질병 패턴도 농촌인 도시인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즉 농촌과 도시의 식생활 수준이 비슷해진 것이다. 질병발현율이 선진국화 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채소를 곁들여 균형식을 취할 수 있는 한국형 식생활의 우수성을 과제 교육시마다 강조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주곡이었던 쌀의 소비량이 1970년대만 해도 1인당 1년간 136.4kg이던 것이 1990년에 119.6kg, 2000년에는 93.5kg로 30년 동안 무려 42.9kg이 줄었다. 이는 1992. 5. 22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제 8조 현저보전 j항(국내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구현을 통한 지식, 혁신적 기술 및 토착 또는 지역사회의 관습의 존중, 보호 및 유지 이들 지식, 기술 및 관습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 하에 이들의 폭넓은 응용촉진 그리고 이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장려) 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군 및 도원에서 교육에 응용되어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우리의 전통식문화에 대한 붐이 일었는데 1996년부터 시범마을을 정하여 우리 콩으로 담근 간장·된장을 담가 도시소비자에게 보급하였다. 1997년부터는 여성들로 조직된 ‘향토음식연구회’를 탄생시켜 전통식생활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전국 94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36개소에 1천만 원씩을 지원하여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4. 농촌여성을 교육하는 생활지도공무원 육성

가. 생활지도공무원 연찬

생활지도사 직무교육은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당면 업무 추진과 관련한 연찬회 등의 추진내용만 기술한다.

1964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과제 및 지도방법 연찬회는 생활개선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개선을 요하는 시급한 과제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생활지도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일선의 경험과 실정을 토의하고 연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함이었다.

1980년대에는 연찬회를 지구단위로 개최하였는데 중앙, 도, 시군 생활지도공무원들이 2~3일간 숙식을 같이 하며 지도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듣는 등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우수사례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생활개선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농촌여성들을 지도할 생활지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한 것은 인력 육성차원에서 21 세기에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초에 농촌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고 한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임가공 활동 등 농외소득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감갓기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을 운영할 대표자와 해당지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추진의 기본 원리와 방향을 모색하고 각 사업지역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성들의 농외소득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3년부터 생활개선업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하였는데 2002년도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 해의 생활개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 담당자들이 매년 1~2월에 1일간씩 틈을 내어 중앙과 각 시도별로 사업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농촌생활연구소의 연구사업 계획 및 전 연도에 연구한 연구결과 중 지도사업 활용자료로 활용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허심탄회한 종합토론도 곁들였다.

나. 관리자 연찬회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발전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 단위 국장, 과장, 계장, 시군 단위 소장 등 사업 관리자와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관리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찬회는 시군, 도 단위 관리자들을 참석케 함으로써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생활개선사업이 인적자원과 사업 규모 면에서 보다 확대되고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은 몇 십년에 걸쳐 끊임없는 교육 실시와 신규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추진방안 연찬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생활개선사업 해외 연수

국내에서의 교육, 연찬회 실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해외연수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변화의 속도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은 국제적인 안목과 사업의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생활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유니세프 지원사업으로 성과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우리 나라 정부와 UNICEF, FAO의 지원으로 실시된 응용영양사업은 1981년까지 연장되어 농가 식생활개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협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때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1982년부터 UNICEF 기금으로 외국의 영양개선사업과 생활개선사업 예산을 뒷받침을 하게 되었고, 1989년부터는 국

비, 지방비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화, 세계화의 추진에 부응하여 대만, 유럽, 미국, 캐나다 등으로 생활개선 연수분야를 확대하여 총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 1월 현재 생활지도인력이 61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그 절반 정도만이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생활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해외연수의 성과로서는 우선 포괄적으로는 21세기 열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생활지도공무원의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고 다양한 생활정보 수집으로 농촌생활 향상에 적용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생활과 문화체험이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농촌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작업 환경개선, 전통테마마을 육성과 관련한 농촌체험프로그램 등을 사업에 적용 할 수 있었고 독일 등 유럽에서는 농촌의 관광기능을 살려 민박, 농가직판, 전통기술을 활용한 축산물 가공, 농촌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캐나다 등에서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농가 안전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농업발전 등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작하여 시군, 도원에 배부함으로써 연수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방에서 연수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앞으로는 농업과학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 DB화하여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 생활개선사업 한·일 공동연구

한편, 일본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국제협력사업(JICA)에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생활개선 분야 전문가 5명이 파견되어 3~4개월간 머물면서 농부증과 피로방지법(1983), 농촌여성 역할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방안(1987), 농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조사와 대책(1989)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한 바 있다.

<참고문헌>

1. 농촌진흥30년사, 1993, 농촌진흥청
2.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자취, 199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3. 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정, 1979, 농촌진흥청
4. 농촌생활과학, 1993~2001, 농촌생활연구소

제 4 절 생활개선회 육성

1. 발전 과정

가. 연 혁

1958년 농사원(현 농촌진흥청)에 농촌가정과(현 생활개선과)를 설립하면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때 생활개선 활동을 위한 농촌부녀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구락부가 조직되어 활동하도록 지원하였다. 1977년, 7. 8일자로 국무총리령으로 농촌의 모든 부녀조직을 '새마을부녀회'로 통합하여 생활개선구락부는 생활개선분과로서의 활동을 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미미하게 되자 1989년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분위기를 살려 1990년 남자 농업인들의 모임체인 농촌지도자회 내 생활개선분과로 가입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활동하게 된다. 농촌여성의 역할이 지역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해지고 자율적인 활동기반 조성이 요청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94년 농촌진흥청 산하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정식 출범하여 2002년 현재 172개회 97,337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조직의 변천과 역할

(1) 생활개선구락부의 태동(1958~1977)

생활개선구락부는 생활개선활동을 위한 농촌부녀자들의 자발적인 학습단체로 1958년 전국의 80여 개 구락부를 시작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해 말에는 418개 구락부에 8,611명이 되었다. 1961년에는 1,484구락부에 28,781명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활동하였으며, 1962년부터는 지도사업 강화 방안으로 생활개선구락부의 수가 대폭 늘어나 3,877개 구락부에 부원수는 73,210명 자원지도자도 7,14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부원들은 생활개선사업을 실천하는 농촌부녀자들의 학습단체로써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이수하였다. 초창기에는 주로 실물전시를 통한 간이작업복 만들기, 균형식 장려, 우물과 변소 및 부엌의 개량, 표준주택의 설계전시, 4-H 여회원의 가사과제 실천 등이 있었는데, 이중 개량메주 만들기, 아궁이 개량, 밥상덮개 만들기 등은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다.

1970년에는 생활개선구락부연합회가 조직되어 시군 연합회 172개에 1,359개의 읍면 연합회로 읍면당 1개의 부연합회가 조직된 셈이었고 생활개선구락부도 증가되어 리동에 하나 정도로 늘었는데 이는 5. 16 혁명 후 농촌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도역량(지도인력, 장비, 훈련)이 뒤따르지 못하는 과도한 팽창 이어서

질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1971년 이후에도 구락부수와 부원수는 매년 늘어났으며 그 활동도 다채로워 졌다. 특히 1972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구락부수는 34%, 부원수는 62%가 증가되어 367,357명에 달하였다.

(2)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부로 활동 (1977~1989)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령 141호로 부녀단체(생활개선구락부, 부녀교실, 새마을부녀회,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어 부녀활동을 하였는데 활동내용은 생활개선사업, 교양사업, 가정관리, 저축사업 등으로 나누어지고 농촌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조직체로서의 체제가 마련되는 관계로 '77년부터 '88년까지 모든 여성조직이 새마을로 통합되면서 생활개선회원은 조직 및 회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조직체 통합후 새마을부녀회는 68천개로 회원수가 2,552천명이었다.

부처별 여성조직체 통합내용

당 초		통 합	
기 관 명	조직명	조직명	비 고
보사부부녀행정	부녀교실	새마을부녀회	각 기관별 지도
보사부가족계획	어머니회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구락부		
농 협	부 녀 회		

198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민간인 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한 때 조직의 운영이 활발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활동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 학습분야도 그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갔으나 생활개선에 대한 새로운 조직활동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면서 새마을부녀회내의 생활개선부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다. 그에 따라 '89년 생활개선부 활동지침이 시달되고, 조직수가 596회 14,441명으로 재정비되어 활동하게 되었으며, 생활개선부의 중요한 역할은 농가생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인근에 파급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며 지역실정에 맞고 농가가 원하는 과제를 개발 보급하는 데 있었다.

개인 실천과제는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개선, 가정관리 등이며, 공동 실천과제는 농외소득활동으로 일감갓기사업과 생활기술교육, 공동기금조성이나 노인교실, 건강관리실, 생활정보센터의 공동운영, 마을환경정화 및 공동시설 정비,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환경공해 요소 제거 공동작업, 생활문화보존, 미풍양속 전승, 교양강좌, 마을공동행사 등을 들 수 있다.

(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분과 조직 활동 (1990~1994)

1990년대에는 단순한 농업노동에만 참여하였던 농촌여성들은 공업화정책으로 청장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자 농업노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었으며 영농의사결정, 농업경영 등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생활개선과제의 실천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임을 공감하고 농촌지도자모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농사에 대한 정보교환 토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2월 농촌지도자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0일 농촌지도자중앙회 이사회에서 생활개선분과를 신설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분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의 주체로서 농촌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율적인 활동기반 조성이 요청됨에 따라 1994년 2. 17일 도 및 시군단위 생활개선부 회장 등 23명이 모여 생활개선회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들간에 사단법인체로 독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여져 7. 4일 생활개선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독립단체로서 활동하기를 결의하였다.

(4)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재 출범 (1994~1997)

1994년 9. 8일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설립 승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촌진흥청에 승인을 요청한 후 9. 23일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법원에 사단법인체 설립을 정식 등록하고,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허가번호 제53호)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재출범 하였고 1994. 10. 20일(농촌진흥청 공고 제 1994-17호)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들은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식·주생활, 가정관리는 물론,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농업경영 참여,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정보화 및 영농교육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써 역량을 발휘하였다.

1996년 2월 생활개선회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생활개선회를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제작하고, 생활개선회기와 뺏지를 제작하여 전국의 생활개선회에 보급하였다.

생활개선회 심볼마크의 뜻



기본형

- 꽃잎 원 : 풍요로움, 화합, 단결
- 팔 벌린 여성과 햇불 : 건강한 여성지도자
- 둥근 가로선 : 푸른 농촌, 넓은 들녘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 가꾸는 생활개선회의 희망을 담은 것임

그 해 4.18일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재정경제원공고 제1996-30호)에 게재되었고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용도 지정하고 생활개선회에 기부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96년부터 생활개선회와 (주)남해화학이 자매결연을 맺어 시군, 도, 중앙단위로 2000년도까지 112개회에서 과제자금을 지원받아 과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5) 사단법인 생활개선중앙회로 개정 (1997~)

1997년 2월 총회를 통하여 명칭을 생활개선회에서 「사단법인 생활개선중앙회」로 개정하고 회원 확대와 회원 단합을 위한 수련회 및 각종교육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해 왔다

2000년도에는 생활개선중앙회 조직기구에 기능별 분과를 두어 확대 운영하고 생활개선회를 여성전문농업인 핵심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기술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을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등 농업과 연계된 생활개선모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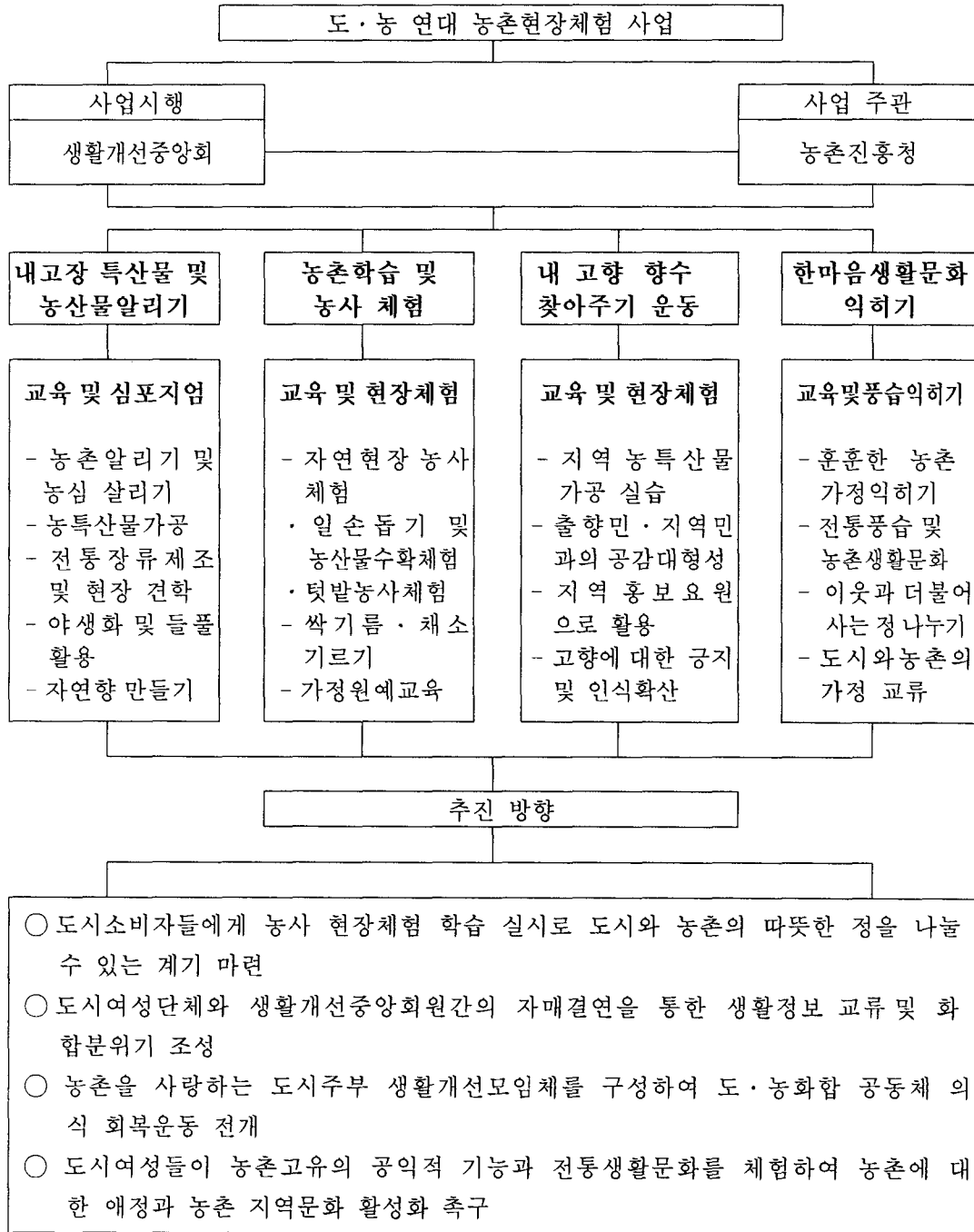
여성전문농업 능력발전을 위한 과제별 연구분과 조직을 확대하여 생활개선회원들이 딸기재배, 가정원예, 농산물가공 등 1인 1과제분과 가입활동을 활성화 되도록 촉구하여 품목별영농분과 과제활동에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생활개선회원 3·3·3 과제 실천 운동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3가지, 가족을 위하여 3가지, 지역사회를 위하여 3가지를 매년설정하여 회원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였다

생활개선회원의 농업정보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와 친해지기 운동을 전개하여 회원들이 e-mail을 만들어 상호간 정보 교류토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생활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환경오염원인 최소화 및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으로 조직된 20개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쌀모으기, 수재민 돕기 등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생활개선회 봉사단 운영도 하고 있다

또한 도농연대 농촌현장체험사업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도시소비자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농촌여성의 역량을 결집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999년에는 2,483명, 2000년도에는 2,866명, 2001년도에는 2,66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농업인과 생산자들에게는 농심을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도시여성과 농촌여성 연대 농촌현장체험 사업 추진전략



2. 생활개선회 (사단법인) 활동

가. 목 적

농촌사회가 다각도로 급변하면서 농촌여성들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가정적 역할은 물론 농업생산 및 농업외 소득활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농업의 보조자가 아닌 영농주체로서 또는 선진농촌을 이끌어 가는 파수꾼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농가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실천하는 학습단체로서, 회원들은 과제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기틀을 조성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농촌여성들이 필요한 학습활동이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단체활동의 목적은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파급하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 농촌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 역할과 과제

- 건전한 가정육성 및 활력 있는 농촌사회의 형성,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교육 행사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판매
- 농촌생활 환경 가꾸기 및 환경보전 활동
-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 농촌과 도시회원간의 교류 및 도농연대 농촌현장체험 교육
- 의식개발 및 리더십 배양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와 여성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과제 활동
- 농업정보화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 농업생산활동 주체로서의 역할 및 경영능력의 전문기술 교육이수
 - 생활기술 + 농외소득 + 영농기술+ 정보화기술 등

다. 조직 및 회원

사단법인 생활개선중앙회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지방에는 16개 시도연합회를 두고 155개의 시군연합회와 1,663개의 읍면 연합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97,3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맺는 말

생활개선회는 학습이나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새로운 생활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여 자기생활 향상은 물론 이웃 농촌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생활개선회원들도 새로운 농업동향과 생활·농업의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영농기술, 농업경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여야 하며,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신의 자기 개발과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농촌여성의 생산자 지위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로서의 의식·능력 함양이 요구된다

또한 농촌여성의 발전이 곧 농촌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고, 여성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발전은 조직활동을 통해서 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농촌여성조직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의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수집, 응용하여 주변에 전파해 나갈으로써 건전한 농촌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농촌진흥 30년사, 1993, 농촌진흥청
2.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발자취, 199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3.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994~2001, 농촌진흥청
4. 농촌생활과학, 1994~2001, 농촌생활연구소
5. 여성지도자교육과정 교재, 2002, 농촌생활연구소

제 5절. 금후 생활개선사업 추진방향

다른 지도사업 영역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생활개선사업은 농업인, 농촌의 현실과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도사업 초창기에서 1960년대에는 농민들의 식생활이 미흡하였으므로 식량절약을 위한 칠분도미 먹기, 장류의 속성 제조를 위한 개량메주 만들기, 채소공급을 위한 양열온상 재배기술을 지도하였으며, 취사시간 절약과 산림녹화, 가축 기르기 등에 도움을 주고자 메탄가스 활용을 권장하였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부업기술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였다. 1970년대에는 지도자 육성을 통하여 생활개선과제의 파급효과를 올리고자 생활개선회장단을 핵심요원으로 중점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훈련, 습득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 점이 중요하며 응용영양

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농촌주민의 영양향상, 영양개선의 집을 설치하였고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신품종 쌀 시식회, 각반, 수반, 작업모 등 농작업복 입기, 농번기 탁아소를 설치 운영과 단체급식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영농참여를 자유롭게 하였다. 1980년대는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엌개량사업을 1983년을 기점으로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별 농작업복 개발과 햇볕으로부터의 피부보호를 위한 작업모 쓰기 등을 강조하여 완전히 정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여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2000년대를 준비하는 생활개선사업 발전방향 연찬회를 몇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1990년대는 특히 생활개선과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하였는데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유기술을 활용한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즉 농촌여성의 창업 지원을 하였고 농업노동 참여로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을 통한 피로회복을 농부증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확운반차, 선별 작업대 등 보조구를 지원하였다. 부엌개량에 목욕실도 포함하여 농업인들의 위생적인 면도 고려하였고, 농촌여성들의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를 사단법인화 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노인들이 교육, 공동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하였다. 아울러 농촌여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리가 되어 주고 있는 생활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미 2000년대는 전개되고 있다. 2000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정보화의 취약계층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71개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촉진하였다. 2002년도에는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하여 '농촌전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앞으로 안전한 농작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특히 기계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농작업 보조기구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확대 육성, 지역 향토음식 맥 잇기, 농촌노인의 전통기술의 전승, 농림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마다 고유 테마가 있는 마을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과 그에 따른 농업인의 교육 확대 등으로 활력 있는 농촌지역사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농업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 및 풍요한 삶의 향상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농촌여성을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기술교육을 확대 실시,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을 촉진과 자기주도학습(SDL)을 도입 활용하도록 하며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하면 기본적인 영어학습교육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농업에 대한 인식 증진과 체험기회 제공 등 소비자를 주요고객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은 이제 식량생산공간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농촌경관조성, 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발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조 우리 농촌여성들의 손길이 필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농촌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농촌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생활개선사업 활발히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